

알록달록 꿈을  
색칠하다

## '천용자 미술강사'



연필 한 자루만 있어도 할 수 있는 일은  
무수히 많다. 글을 쓸 수 있고, 그림을 그릴  
수 있고, 버킷리스트를 적어볼 수도 있다.  
일산노인종합복지관에서 미술 강의를 하는  
천용자 씨(76세)도 연필과 붓으로 특별한  
일을 한다. 그는 사람들에게 꿈을 그리고  
색칠하는 법을 가르친다.

글 편집부 / 사진 조병우



### 복지관 학생에서 선생님이 되다

일산노인종합복지관 유튜브 채널 '호수복지  
텔레비'에는 다양한 취미가 있다. 천용자 씨  
가 다시 붓을 들게 된 것도 복지관을 통해서  
였다. "12년 전부터 복지관을 다녔는데 어느  
날 복지관에서 미술 강사가 필요하다는 제의  
가 들어왔어요. 그동안 받은 사랑을 돌려드  
릴 수 있는 좋은 기회라 생각했습니다."

대학에서 미술을 전공한 용자 씨는 기쁜 마음  
으로 강의를 시작했다. 많은 이들이 용자 씨  
를 찾아와 함께 행복을 색칠해나갔다. "어린  
시절부터 화가가 꿈이었다는 분, 잘 그리고  
싶어 종일 연습을 한다는 분 등 저마다 사연  
이 있어요. 그런 이야기를 듣다 보면, 강사로  
서 사명감과 책임감이 더 강해져요."

더 쉽게, 더 잘 가르쳐주고 싶다는 마음은  
용자 씨를 더욱더 성장하게 했다. 유튜브를  
통해 다른 사람들의 강의를 들으며 단점을  
보완하기도 하고 좋은 강의를 있으면 회원들  
에게 추천하기도 한다.

### 그릴수록 보이는 세상

용자 씨는 "그림 그리는 것만큼 좋은 취미  
생활은 없다."고 자부한다. 집에서 혼자서  
도 얼마든지 할 수 있기 때문이다. 무엇보다  
좋은 것은 감탄할 것이 많아지면서 정신 건  
강에도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. "계절 따라 변  
하는 자연, 나날이 커가는 손주의 모습. 세상  
에는 어쩔 그리도 아름다운 것이 많을까요?  
나이가 들수록 아름다운 것을 그려보고 싶다  
는 마음이 커져요. 세상 만물이 작품의 원천  
이에요."

용자 씨는 재능 기부가 노년을 행복하게 한  
다고 자신한다. "남에게 베푸는 것은 참  
좋은 일이에요.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퐁퐁  
싸매고 있으면 아무것도 아닌 게 돼버리지만  
재능은 베풀수록 더 커져요."

그릴 것 많고 그리고 싶은 것도 많은 인생!  
용자 씨는 오늘도 콧노래가 절로 나온다.  
"집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세요. 인생은  
내가 그리고 색칠하기 나름입니다."

